

| 언어논리영역 |

| |
|------|
| 응시번호 |
| 성명 |

| |
|----------|
| 문제책형 |
| 신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문제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4.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한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 및 해설은 답지 및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이의제기 방법 :
 - 매회 강의 종료 후 강사에게 직접 제기
 - 카카오톡 채널 "신성우의 언어논리"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이의제기 가능
3. 이의제기 결과 확인
 - 강의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이의제기 결과 제공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별급(別給)이란 ‘특별한 사유로 재산을 증여한다’라는 뜻을 지닌 조선 시대의 단어로 재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득(別得)’이라 한다. 조선 시대에는 정식 재산 상속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증여가 별급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정식 재산 상속 시 상속분이 본처의 자녀보다 적은 첩자녀(妾子女)를 배려하기 위해 행하는 사전 증여식 재산 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 관행 역시 별급으로 취급되었다. 별급의 대상은 땅과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금전, 혼인할 때 증여되는 노비 등 다양했다.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별급 사유를 파악해 보면, 등과나 관직 제수에 대한 축가가 가장 많았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한 별급은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재산을 지급한 경우였다. 봉사(奉祀)별급이라 불린 이 형태는 조선 전기까지는 드물었으나, 16세기 서서히 확산되어 17세기에는 조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제사를 담당하는 장자·장손에 대한 우대 조치기도 했다.

한편 효행의 대가로 주는 별급은 16세기까지 많이 나타나고 17세기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의 혼인과 혼인 후 거주 지역에 대한 풍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조선 전기의 가족 구성은 장남이 부모와 한집에 기거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직계 가족 형태와는 거리가 멀었다. 혼인과 동시에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므로, 형제들은 한 지역에 거주하기보다 멀리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늙은 부모가 자신을 봉양해 줄 자식을 찾아 여러 지역을 찾아갔다는 옛 동화는 이런 모습을 상징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이서 나이가 들어 병든 부모를 봉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식에 대해 별급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다 17세기 이후에는 장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효행을 이유로 지급되는 별급은 점차 사라졌다.

- ① 개인의 능력과 성취도 조선시대 재산 별득 사유 중 하나였다.
- ② 조선시대 당시 재산 상속은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 ③ 조선 전기에는 장자에게 별급을 주는 경우가 드물었다.
- ④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장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⑤ 조선시대 첩의 자식은 별득을 하지 못한 이상 상속분이 다른 자식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 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은 청나라 건국 과정에서 병자호란이라는 수모를 겪는다. 이후 조선에서는 ‘영고탑 회귀설’이라는 주장이 생겨난다. 영고탑 회귀설이란 청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은 천하를 다스릴 능력과 운세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천하의 중심에서 패퇴하여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론이었다. 19세기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가 서양세력에 패퇴하여 만주로 쫓겨갈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한 것도 영고탑 회귀설의 아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영고탑이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명대의 여진족은 압록강 근처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건주(建州)여진, 백두산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송화강 유역에 거주하던 해서(海西)여진, 그리고 연해주의 흑룡강 하류지대에 거주하던 야인(野人) 세력의 여진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이들 여진족 발상지를 ‘영고탑(寧古塔)’이라 했고, 그 위치는 흑룡강성의 영안시를 가리킨다.

그러나 ‘영고탑’이 ‘임고타(林古打)’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신충일의 지도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명나라가 약화되자 건주여진의 추장 누르하치가 성을 쌓고 나라를 선포한 후 결국 청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누르하치의 여진족은 조선과 여진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국경지대의 인삼 채배를 독점하고자 하였다. 1595년 조선은 이러한 여진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 해 8월, 여진족이 압록강변의 국경도시 위원에 몰려오자 조선군이 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난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자 조선은 여진족을 사살한 군관을 중죄로 다스려 여진족의 불만을 누그러뜨린 후, 신충일을 여진에 파견해 그들의 동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충일은 국경 초소인 만포진을 출발해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넌 뒤 서북쪽으로 이동해 누르하치를 만나 상호 불침의 원칙을 확인하고 건주여진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를 지도로 그려냈다.

이 지도에서 ‘임고타(林古打)’는 건주 여진의 당시 수도를 가르킨다. 이는 [ningguta]라는 만주어를 음차한 것으로 여진족 발상지로 여겨진 ‘영고탑(寧古塔)’과 중국어 발음이 같으나 위치가 다르다. 그러다 효종 이후 [ningguta]라는 만주어는 영고탑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청나라가 세워진 후 청의 칙사가 [ningguta]를 영고탑이라고 문서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변급의 제1차 나선정벌 기록에도 [ningguta]를 영고탑이라 기록했다. 이 기록을 중시하는 입장은 ‘영고탑 회귀설’에서의 영고탑을 신충일의 지도에서의 ‘임고타’라 본다.

- ① 누르하치는 인삼 채배를 독점하고자 위원에 여진족을 파견하였다.
- ② 영고탑 회귀설은 청나라가 몰락하여 임고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 ③ 만포진에서 서북쪽으로 이동하면 영고탑이 나온다.
- ④ 효종 이후 영고탑은 과거 건주 여진의 수도를 지칭한다.
- ⑤ 영고탑은 당초 흑룡강성 영안시를 지칭했으나, 청 건국 등을 거치면서 건주 여진의 수도도 영고탑이라 표기되었다.

문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 종교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다. 석유 생산 및 유통 등 에너지 자원 문제와도 관련되어 중요 국제정치 현안이 되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세 종교는 갈등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세 종교는 모두 중동에 존재하던 셈족의 종교인 아브라함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세 종교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묶어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세 종교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일신 신앙이다. 그리스-로마의 종교, 불교, 힌두교와는 다르게 신은 오직 유일하며 절대적이다. 야훼, 여호와, 하느님, 하나님, 알라 등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에서 유일신을 이르는 어휘인데, 뿌리가 같기에 각 종교들에서 믿는 유일신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둘째로는 정직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중동의 유목민족이었던 셈족과 유대인, 아랍 부족은 집단주의, 공동체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그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통해 정직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셋째로는 호전성이다. 세 종교는 매우 투쟁적이며 이는 중동의 척박한 환경에서 종교가 출발했던 것에 기인한다. 이들은 이교, 이단에 대한 종교적 성전(聖戰; Holy war, Jihad)을 용인, 더 나아가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중세 십자군 전쟁, 현대 이슬람 극단 조직의 테러는 이런 호전적 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분화가 된지 1500년 가까이 된 지금은 세 종교 간의 차이가 훨씬 많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즉 예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유대교의 주류는 예수를 거짓된 예언자로 간주한다. 유대인만을 구원하고 세상을 평정할 구세주, 즉 메시아(Messiah)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다 로마의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한 예수는 예언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라고 본다. 반면 기독교에서 예수는 진 인류를 구원한 존재, 즉 메시아이며 신성(神性)을 지닌 존재로 본다.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직전 예언자로서 위대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보지만 신성은 부정한다.

- 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세 종교 사이의 갈등으로 에너지 자원 문제가 중동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 ②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간의 공통점은 세 가지뿐이다.
- ③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은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9·11테러를 성전으로 본다.
- ④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구원자를 참칭한 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된 원인으로 본다.
- ⑤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게 본다.

문 4.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학자 가워스는 인터넷을 활용해 전 세계 수학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연구하면 난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폴리매스’라 이름짓고 관련 규칙들을 제시했다. 규칙에는 ‘어떠한 질문이나 아이디어도 환영한다, 글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쓴다, 논문 저자는 ‘폴리매스’로 통일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폴리매스의 첫 번째 연구 과제는 ‘헤일스-주잇 정리’의 조합적 풀이를 찾는 것이었다. 조합적 풀이란 고급 지식이 필요한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난해한 수학적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가워스는 자신이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7시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나, 참여자가 차츰 늘어 최종적으로 27명이 참여해 37일 만에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해결되었다. 참여자 중에는 필즈상을 수상한 유명 수학자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도 있었다.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연구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폴리매스는 여덟 번째 연구 과제에서 큰 성과를 거둔다. 이는 ‘쌍둥이 소수의 무한성 추측’에 대한 프로젝트로, 쌍둥이 소수란 둘 사이 간격이 2인 소수쌍을 의미한다. 기존에 수학자 이탕 장은 소수 사이의 간격 n 이 7천만인 소수쌍이 무한함을 증명하였다. 수학자들은 그 차이 n 을 궁극적으로 2까지 줄이기 위해 폴리매스에 참여했다. 폴리매스를 통해 여러 명의 지식이 더해지자 세 달 만에 n 이 7천만에서 4,680까지 줄어드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후 수학자 메이나드의 연구에 의해 600으로 줄어든 n 은, 그가 폴리매스에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246까지 줄어들었다가 최종적으로 다니엘 라슨이라는 19세 학부생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는 천재들의 성과기도 하지만 폴리매스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업적이다.

- ① 헤일스-주잇 정리의 핵심적 부분은 폴리매스에서 증명되었다.
- ② 폴리매스 프로젝트가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한 과제는 최소 6가지다.
- ③ 폴리매스는 참여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④ 쌍둥이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함에 있어서 메이나드의 기여도는 다니엘 라슨의 기여도보다 크다.
- ⑤ 폴리매스에 어떤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선 자신의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문 5.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을 인공 신경망 기술이라 한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이미 할당된 가중치를 각각의 입력값에 곱해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퍼셉트론들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쇄에서 가장 처음에 외부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하며 다음 계층으로 입력되는 값들은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반영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값을 구한다.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영향을 주어 가중치가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이질적인 학습 데이터를 많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습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오차가 발생하면 입력층에서 출력층의 방향으로 퍼셉트론 가중치가 갱신된다.
- ② 퍼셉트론에 할당된 가중치의 값이 변하면 임계치도 변한다.
- ③ 인공 신경망에 어떤 자료를 입력했을 때 출력값이 정답과 같다면 퍼셉트론 가중치 상의 변화는 없다.
- ④ 인공 신경망의 학습 단계에서 이질적인 데이터를 많이 부가하면 학습 단계의 오차값이 작아진다.
- ⑤ 학습 단계의 오차값이 클수록 판정 단계의 오차값은 작아진다.

문 6. 다음 글의 (가) ~ (바)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동물들은 눈동자를 크거나 작게 만들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므로 눈동자의 모양이 원형인 것이 무난하다. 그런데 매복형 육식동물과 몇몇 초식동물은 눈동자의 모양이 다르다.

일반적인 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를 가지고 있으며, 각 눈으로부터 얻는 시야의 차이인 양안시차를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그런데 양안시차뿐 아니라 거리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는 심도 역시 중요하다. 심도란 초점이 맞는 범위를 말하며, 눈동자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 초점의 범위가 좁아지면 심도가 ‘얕다’고 하며, 반대인 경우를 심도가 ‘깊다’고 한다.

매복형 육식동물은 일반적인 동물보다 세로로 길고, 가로로 짧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로로 심도가 (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동물에게는 초점 범위 (나) 위와 아래의 물체들이 매복형 육식동물에게는 (다)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몇몇 초식동물들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가로로 심도가 (라) 시야를 가진다. 이는 천적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명성을 포기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므로 가로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이 세로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보다 (마) 가로 방향으로 일반적인 동물이 선명하게 보는 초점 범위 안에 있는 물체를 흐릿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초식동물은 하나의 눈만으로 초점을 맞추는 단안시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고 눈의 위치도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두 시야가 겹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뒤를 빼고 거의 전 영역을 볼 수 있다.

- |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① | 얕다 | 안에 있는 | 흐릿하게 | 얕은 | 적어 |
| ② | 얕다 | 밖에 있는 | 선명하게 | 깊은 | 적어 |
| ③ | 얕다 | 안에 있는 | 흐릿하게 | 얕은 | 많아 |
| ④ | 깊다 | 안에 있는 | 선명하게 | 얕은 | 많아 |
| ⑤ | 깊다 | 밖에 있는 | 흐릿하게 | 깊은 | 적어 |

문 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치타우리 종족의 침공으로 지구는 멸망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와 여러 행성들은 영웅들을 모아 치타우리 종족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지구를 지킬 목적의 간담회가 확정되어 간담회 참석자 중 영웅들의 대표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가 지구를 지킬 목적으로 열린다면, 영웅들의 대표는 지구가 아닌 행성의 영웅이 맡아서는 안 된다. 만약 간담회가 지구를 지킬 목적으로 열리고 영웅들의 대표가 지구인이라면, 영웅들의 대표는 흑인이나 과학자가 맡아야 한다. 다른 행성의 영웅 중에는 과학자나 흑인이 없다. 외계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영웅들의 대표를 맡아서는 안된다. 외계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으면, 외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지구인이 아니면 외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영웅들의 대표가 외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지구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타노스가 영웅들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과학자인 아이언맨이 간담회에 참석하면 타노스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영웅 중에는 아이언맨을 제외하면 과학자는 없다. 영웅들의 대표로는 블랙팬서가 선출되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 ① 블랙팬서는 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기
- ② 흑인이면 외계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기
- ③ 블랙팬서만이 다른 행성에서 오지 않은 흑인이기
- ④ 블랙팬서만이 외계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는 흑인이기
- ⑤ 블랙팬서만이 과학자이면서 흑인이기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있어 마치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물 촬영 영상과는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순서대로 거쳐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는 3개의 꼭짓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 여러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때 개별 꼭짓점의 위치값은 사람이 입력하여야 하는데, 표현하려는 대상이 복잡할수록 꼭짓점을 설정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삼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정한 꼭짓점들의 개수는 물체의 형태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꼭짓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모델링을 통하여 구성된 입체 정보를 2차원 화면으로 생성하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한다. 화면을 표현하는 가장 작은 표현 단위를 화소라 한다. 화면은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표시되고, 각 화소에는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숫값이 부여된다. 다른 물체로 인한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생기는 물체 표면의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숫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이 구현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숫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완성되고, 이를 화면 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하나의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모델링에 사용한 꼭짓점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렌더링에서 표현하려 하는 해상도가 높아져 출력에 필요한 화소의 수가 많아지면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연산 되지 못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하나의 동영상의 완성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 ① 동일한 면적인 화면에 대하여 해상도가 높을수록 화소의 크기는 커진다.
- ② 모델링 과정에서 물체가 커지는 경우 물체를 구성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많아질 것이다.
- ③ 프레임을 구성하는 화소들의 밝기나 색상을 부여한 이후 단계에서, 표현하려는 물체의 공간적 위치와 관련된 값을 수정할 수 없다.
- ④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 ⑤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물체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삼각형의 수가 많을수록 출력 화소의 수가 많아진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을 자신들에게 구조적으로 종속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소수의 강대국들이 전세계를 식민지로 분할 점령하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주류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던 제국주의론을,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저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맞추어 변형한 ‘종속 이론’이다.

경제 이론상으로는 자유 무역 상황에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모든 분야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후진국도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는 있다. 이 비교 우위를 감안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이 특화된 무역을 한다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때 ㉡ 자본이 부족했던 후진국은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점차 산업규모의 발전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경제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식민지를 막 벗어난 나후된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 하나가 종속 이론이다.

종속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계급 간 착취-피착취 관계를 도식적으로 국가 간 관계에 대입한다. 이에 따르면 ㉢ 후진국들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독립된 경우에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을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킨다. ㉤ 후진국들이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 선진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종속된 경제 구조 아래에서 후진국들은 ‘저성장’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성장 경로만을 걷게 되어 ㉥ 후진국들은 경제성장에 실패한다. 즉, 정치적으로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 만성적으로 선진국에 종속된 상태에 놓여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만 등 식민지였던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종속 이론은 타당성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리고 수입대체산업화를 택한 ㉦ 후진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장에는 실패한 것도 종속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보 기>

- ㄱ. ㉠에 동의해도 ㉡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
- ㄴ. ㉢, ㉣, ㉤에 모두 동의한다면 ㉥에 동의해야 한다.
- ㄷ. ㉢, ㉦에 동의할 경우 ㉥에 반대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0.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경찰관 A는 K 호텔에서 있었던 절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절도 사건의 용의자는 갑, 을, 병, 정, 무 총 5명이다. 경찰관 A는 이들 중 진범 외에도 조력자가 한 명, 목격자가 세 명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사건의 목격자는 조력자나 진범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경찰관 A가 용의자를 조사했을 때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갑: 사건의 진범은 한 명이며 나는 진범을 알고 있다. 을과 병은 진범을 목격했다.

을: 나는 병과 정과 함께 사건을 목격했다. 진범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갑이 진범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병: 진범 본인과 진범을 도운 조력자만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사건에 대한 목격자조차도 진범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정: 나는 진범이고 조력자는 없었다.

무: 나도 사건을 목격했다.

추후 진범과 조력자, 그리고 목격자를 확인하자, 이들 중 두 명의 진술은 모두 거짓 세 명의 진술은 모두 참인 것으로 밝혀졌다.

- ① 갑은 조력자이다.
- ② 을과 병은 진범을 목격하지 않았다.
- ③ 정은 진범이다.
- ④ 갑은 진범을 목격하지 않았다.
- ⑤ 무는 진범을 목격하지 않았다.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신규 주무관을 대상으로 복지, 환경, 노동, 건축 업무 4개 업무를 대상으로 선호를 조사하였다. 복지 업무와 노동 업무를 모두 선호하는 신입 주무관은 아무도 없었다. 환경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건설 업무도 선호하지 않았다. 신입 주무관 값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복지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신입 주무관 을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건축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경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 중 노동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보 기> —

- ㄱ. 을은 복지 업무를 선호한다.
- ㄴ. 세 개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규 주무관이 적어도 한 명 존재한다.
- ㄷ. 조사 대상이 된 업무 중에, 어떤 신입 주무관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가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2.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원내 4당의 당대표 전원인 A, B, C, D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심의에 참석했다. 이번 법안심의와 관련해 알려진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이번 법안심의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은 보건 정책, 재정 정책, 문화 정책, 안보 정책 등의 여러 정책 분야들 중 최우선적으로 다루야 하는 지지 분야를 각각 하나씩 밝혔다.
- E-스포츠 관련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이는 총 6명이고, 나머지는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 심의에 상정된 법안은 E-스포츠 관련 법안과 실내 마스크 해제 법안 두 가지였고, 회의 참석자는 각각 하나의 법안에만 동의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들은 문화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생각한다.
- 문화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지지하는 이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 법안에 동의했다.
- A는 문화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지지하고, C는 안보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지지한다.
- A, B, C, D를 제외한 참석자 중 1명 만이 문화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지지한다.

- ① 적어도 한 명은 보건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지지한다.
- ② 만일 오직 두 명 만이 재정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지지한다면, 당 대표들은 모두 마스크 해제 법안에 동의한다.
- ③ 만일 B가 안보 정책을 최우선 정책 분야로 지지하면, 당대표를 제외한 참석자 중 적어도 5명은 E-스포츠 법안에 동의한다.
- ④ 당 대표들 중 적어도 두 명은 E-스포츠 관련 법안에 동의한다.
- ⑤ 만일 당 대표를 제외한 사람 중 안보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지지하는 이가 없다면, B와 D는 마스크 해제 법안에 동의한다.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가뭄, 폭염, 홍수 등과 같은 이상 기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 기후는 해수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엘니뇨와 라니냐가 대표적이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서는 지구 자전으로 인해 서쪽 방향으로 무역풍이 분다. 이 무역풍은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 방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서태평양 쪽에서는 두껍고 동쪽으로 갈수록 얇아진다. 그 결과 적도 부근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낮아지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가 증발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따뜻한 해수가 공기를 데워 상승 기류를 발생시켜 저기압이 발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해수의 온도가 높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 부근은 강수량이 많아진다.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따뜻한 표층수가 동쪽에 머무르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며, 동태평양은 이와 반대가 되는데 이 현상을 엘니뇨라 부른다.

한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홍수가 잦아지거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상승하고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하강한다.

- ① 라니냐가 발생하는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해안의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아질 것이다.
- ②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지는 경우,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얇을 것이다.
- ③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동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상승 기류에 의한 저기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 ④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해지는 경우, 페루의 서쪽 연안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하락할 것이다.
- ⑤ 남아메리카 서쪽 연안에 있는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라니냐로 인한 현상일 것이다.

문 14.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당신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각국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비교하려 한다고 해보자. 각 국가에 대한 당신의 선호도를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국가 중 어떤 국가를 가장 선호하는지는 쉽게 말할 수 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를 A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국가를 B라 하자.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생각해보자.

- (가) X의 확률로 A국으로 여행을 가고, Y의 확률로 B국으로 여행을 간다.
- (나) 무조건 C국으로 여행을 간다.
- (다) 무조건 D국으로 여행을 간다.

이때 X와 Y를 합친 값은 1이라 하고, A국으로 여행을 갈 때의 선호도를 1, B국으로 여행을 갈 때의 선호도를 0으로 놓는다면, 모든 국가들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수치화시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 보자.

- (1) X가 0.7이라 할 때, 당신은 (가), (다) 중 어떤 대안을 더 선호하는가?
- (2) Y가 0.7이라 할 때, 당신은 (가), (나) 중 어떤 대안을 더 선호하는가?

당신이 (1)에서는 (다)를, (2)에서는 (가)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C국과 D국 중 ㉠ 국 여행을 더 선호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여행 가기를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B국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국가가 A국으로 바뀌고 앞서 말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면 당신은 C국과 D국 중에서 더 선호하는 국가는 ㉡ 것이다.

- | | | |
|---|---|--------|
| | ㉠ | ㉡ |
| ① | C | 알 수 없음 |
| ② | C | C |
| ③ | C | D |
| ④ | D | 알 수 없음 |
| ⑤ | D | C |

문 15. 다음 글의 A~C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에 대해 세 사람의 견해가 대립한다.

A: 예술 작품의 감상과 비평에 있어서는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즉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이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민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B: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배경과 같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 분석 등이 중요합니다. 작품 속에 표현된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통해 판단되는 미학적인 요소들은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C: 예술 작품에 대한 모든 분석적인 비평은 잘못된 결과로 귀결됩니다. 예술 작품은 규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 혹은 외적인 배경, 내적인 형식적 요소, 그 어떠한 것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① A와 달리 B는 예술 작품의 비평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A와 달리 B는 작품 내적의 미적 아름다움만이 예술 작품 비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C는 A와 달리 예술 작품과 관련된 기존 비평가의 관점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 작품을 비평한다.
- ④ C는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B는 그렇지 않다.
- ⑤ A와 B는 예술 작품의 비평에 있어 예술가가 살았던 당대 시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 이후 법철학은 권리를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따른 '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 왔다. 두 입장은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A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법률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A에 따르면, 권리의 존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의 존재라 보았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 보았기 때문에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에 따르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가령 사람이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 할지라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동물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B는 권리란 이익이며,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타인의 법류상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고 본다. 즉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

B에 따르는 경우 제 3자가 개입하였을 때 권리 의무의 판단이 문제가 된다. 가령 갑이 을과 계약하여 병에게 우유배달을 시켰다고 하자. 직관적으로 이익 수혜자는 우유를 배달 받는 병이고 권리자는 계약을 체결한 갑이어야 할 것이나, B는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보 기>

- ㄱ. A는 합리적 이성을 지니지 않은 권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하지만, B는 그렇지 않다.
- ㄴ. B는 타인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본다.
- ㄷ. A는 권리자가 갖춰야 하는 조건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며, B는 권리자의 이익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7.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심리학자 미셀은 아동의 절제력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4세 아동들을 방으로 데려가 마시멜로 사탕을 하나씩 나눠준 후,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상으로 하나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을 15년 후에 다시 보았을 때, 실험에서 마시멜로 사탕을 먹는 것을 오래 참은 아동일수록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셀 박사는 실험에서 아동이 보인 행동, 즉각적인 욕구 만족이나 보상을 스스로 지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절을 인내하는 능력을 ‘만족지연 능력’이라 불렀다.

㉠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충동적 욕구를 따르는 원시적 쾌락 원리보다 유용성을 고려하는 자아의 현실 원리가 우세할 때 만족지연 능력이 생긴다고 본다. 발달 과정에서 만족지연 능력은 문화적 영향력보다 충동을 억제하려는 자아의 강도에 의해 형성된다. 아동이 자발적인 자제력을 갖게 되면 만족지연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이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이유를 지연된 보상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는 만족지연 능력이 강해지는 것을 아동의 인지적 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받을 큰 보상이라는 선택 상황에서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지적 능력, 즉 사건을 구조화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아동이 사회적 강화를 통해 만족을 지연하는 행동이 더 가치 있고 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충동적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지연된 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감은 약속 이행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때 만족지연 능력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외에도 또래나 부모, 교사 등 사회적 모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된다.

<보 기>

- ㄱ. 미셀의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 중 마시멜로 캔디를 먹는 것을 오래 참은 아이들은 과거 유사한 실험 참여를 통해 마시멜로를 추가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을 강화하고, ㉠을 약화하지 않는다.
- 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 중 즉각적 보상을 선택한 아이들의 IQ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발견되면, ㉠과 ㉡은 강화된다.
- ㄷ.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 중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을 감정된 결과 쾌락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은 약화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8.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세기 인류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다. 1차 대전 전후 처리의 미흡함과 히틀러의 야욕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합의가 형성된 2차 대전과 달리, 1차 대전은 그 원인에 대해서 국제정치 학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많은 학자들은 ㉠ 제국주의적 경쟁이 1차 대전의 원인이었다고 인식한다. 제국주의란 타국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유럽 열강들은 19세기 말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 식민지를 만들었고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경쟁을 했다. 이 제국주의적 경쟁 결과 1차 대전이 발발했다고 보는 것이다.

㉡ 유럽 열강 국가 내에서의 민족주의적 열풍이 1차 대전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많다. 민족주의란 집단적 동질감·소속감·연대감에 기반한 공동체인 민족 및 그러한 민족이 주체가 된 민족국가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00년 가까이 큰 전쟁 없이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해온 유럽 열강들이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은, 열강 내부에서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성이 고조되어 열강의 수뇌부가 그 전과는 달리 협상 등 온건책을 쓰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민족주의와 결합된 ‘발칸 문제’가 1차 대전의 원인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은 유럽 열강 내부의 민족주의보다는 동유럽 발칸반도에서의 민족주의가 문제였다고 본다.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여 발칸반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발칸 문제’가 발생하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약소민족들의 독립과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을 이용해 발칸반도로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협조 체제는 엉망이 되었고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보 기>

- ㄱ. 19세기 내내 아시아 전역에서 세력을 다두었던 영국, 러시아가 식민지가 거의 없던 독일에 맞서 1차 대전에서 협력했다면 ㉠이 약화된다.
- ㄴ. 1917년 당시 유럽의 열강들은 국민들의 열성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을 강화한다.
- ㄷ. 발칸반도의 세르비아 출신 청년이 발칸반도에 개입하여 세르비아의 민족국가 수립을 방해하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했고 그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은 ㉢을 강화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의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이다.

- (1) 실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
- (2) 의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

실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가 필연적이면 연역 논증이고 필연적이지 않으면 귀납 논증이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실현 기준에 따르면 타당한 논증만이 연역논증이다. 의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가 필연적이면 연역 논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귀납 논증이다. 의도된 뒷받침 관계가 필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닌 부당한 논증도 연역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연역’과 ‘귀납’을 논증을 분류하는 개념이자 평가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필연적 뒷받침 관계가 성립하는 논증, 즉 타당한 논증만을 연역 논증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바로 실현 기준의 입장이다. 반면에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연역’과 ‘귀납’을 논증을 분류하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입장을 바탕으로 논증에 대한 재구성을 살펴보자.

<사례1>: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이때 논증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곧 실현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과연 그럴 것인가? 평가의 개념으로 ‘연역’과 ‘귀납’을 바라보는 실현 기준의 입장에서는 <사례1>을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 없다. <사례1>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전제를 찾는 논증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사례 1>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사례 1-1>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사례 1-2>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논증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핵심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통해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례1>을 <사례 1-2>로 재구성했다고 하자. 우리가 그에게 왜 <사례 1-1>이 아닌 <사례 1-2>로 재구성했느냐고 물으면, <사례 1>이 제시된 맥락을 고려할 때 논증 제시자의 의도는 연역적이라기 보다 귀납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즉 약한 강도로 결론을 뒷받침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게 된다.

이는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논증을 연역이나 귀납으로 분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례 1>을 <사례 1-1>로 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도 기준에 따라 <사례1>을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증 재구성의 과정과 논증 분류 과정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논증 재구성의 과정에서 논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 해야한다는 것은 실현 기준이나 의도 기준 어느 하나를 지지해주는 것일 수 없다.

문 19.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부당한 연역 논증이 가능하다면, 연역논증에서 전제와 결론 사이의 뒷받침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을 것이다.
- ② 논증을 ‘연역’과 ‘귀납’으로 분류할 때, 연역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
- ③ 논증을 재구성함에 있어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논증 재구성 과정은 ‘연역’과 ‘귀납’ 분류 기준 중 의도 기준을 따른다.
- ④ <사례 1-1>은 <사례 1>의 맥락 상, 논증 제시자의 의도가 귀납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 ⑤ ‘연역’과 ‘귀납’을 분류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도 기준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문 20. 위 글을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merz?

—<사 례>—

<사례2>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에 틀림없다.

<사례 2-1>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심화되었음에 틀림없다.

<사례 2-2>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 해수면의 높이 상승이 발생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심화되었음에 틀림없다.

—<보 기>—

- ㄱ. 논증 제시자가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된다’라는 배경 지식 때문이었다면, <사례 2>는 <사례 2-1>로 재구성될 수 있다.
- ㄴ. <사례 2>를 <사례 2-2>로 재구성했다면,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약한 강도로 결론을 뒷받침하려 한 것으로 본 것이다.
- ㄷ. 논증 제시자가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의 필요조건이다’를 생략된 전제로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사례 2-1>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 될 것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2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부여의 관북리 유적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유적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채 배열되어 있어 백제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성 안의 시가지를 정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적에는 인공 연못이 있고 그 안의 퇴적토는 크게 3개 층으로 구분된다. 최하층은 황갈색토층으로 문자가 기록된 대나무·금동제 귀걸이·기와 및 토기조각 등이, 중간층은 흑회색점질토층으로 벼루·등잔·바구니 등이, 최상층에서는 당나라의 동전·철제 창·철제 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 연못 주위에는 막돌을 이용하여 4~5단 높이로 쌓아올린 둑이 있다. 둑은 동서가 긴 직사각형으로, 규모는 남북 길이 6m, 깊이 1m 내외의 크기이며, 동서 길이는 7m 가량이다.

연못에 인접한 동쪽 지역에서는 십(十)자로 교차하는 도로망 유적이 발견되었다. 남북 도로는 연못 동쪽 30m 지점을 교차점으로 개설되어 있고 동서 도로의 길이는 11m, 남북 도로의 길이는 40m로 확인되었다.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배수로 시설이 있는데 동쪽은 두께 5cm 정도의 판자를 45cm 간격을 두고 세워 배수로를 만들었고, 서쪽은 막돌을 이용하여 너비 20cm 정도의 배수로를 만들었다. 도로의 교차지점에는 화강암을 덮었는데, 너비 120cm, 길이 130cm의 화강암 판돌 3매를 남북방향으로 이어서 깔아 놓는 식으로 설치해 총 길이가 동서 도로의 너비와 같았다.

도로의 동쪽에는 건물터가 있다. 건물터의 기단은 기와를 쌓아 만든 와적기단이었고, 샘으로부터 물을 길어 올 때 사용하는 도로와 배수로가 있었다. 건물터 기단과 배수로 사이에서는 표면에 얼굴무늬가 있는 토기·고급 가공과정을 거친 흙으로 만든 완형토기들·한문이 새겨진 항아리·연꽃무늬수막새·동으로 만든 순가락과 철제 물품이 발견되었다. 완형토기는 생산의 규격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면에 ‘七·八’ 등의 숫자가 오목새김된 것도 있다.

공방터는 남북 도로에서 북동편으로 약 7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용광로가 있었던 시설과 가로로 된 손잡이가 상하에 부착된 토관을 이용하여 만든 집수 시설이 있었다. 용광로가 있었던 시설 내부에서는 철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 ① 당나라 동전이 출토된 곳은 완형토기가 출토된 곳에서 서남쪽에 위치한다.
- ② 문자가 새겨진 유물은 모두 물이 있던 곳에서 발견되었다.
- ③ 연못의 넓이보다 동서 도로의 넓이가 더 넓다.
- ④ 화강암으로 교차점을 완전히 덮기 위해선 기존 판돌을 기준으로 30매가 필요했을 것이다.
- ⑤ 건물터 기단이 흑회색점질토로 구성되어 있다면 등잔과 얼굴무늬 토기는 같은 시대에 묻혔을 것이다.

문 2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은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는 왕의 부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피해가 잦아지면 왕은 제사를 지내서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야 했다.

가뭄이 심하면 왕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동시에 무고한 백성들을 풀어 주기도 하면서 부덕함을 없애려 했다. 민간에서는 아들을 못 낳는 여인네들을 골라 키에 강물을 담아 여인네들에게 물을 마구잡이로 끼얹기도 하고 자기 집 처마 끝에 버들가지나 솔가지를 마개로 한 물병을 거꾸로 매달아 물이 떨어지는 듯한 유사 주술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원하는 기청제(祈晴祭)라는 의식도 존재하였다. 조선은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므로 벼가 한창 익어갈 무렵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 논밭의 곡식이 상하기 시작하면 비가 그칠길 바라는 기청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주로 음력 7, 8월에 제사를 지냈으며 영제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기청제 동안 여인들은 낮에 나들이를 할 수 없었고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은 비가 몇지 않으면 스스로 피를 내는 자학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사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비과학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의례는 사람들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어 전근대 사회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예컨대 기우제를 지내는 기간에는 함부로 짐승을 도살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생존에 유리한 금제였다. 또한 왕과 고위 관료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는데 이 역시 단순히 고위층의 반성 및 민심 달래기라는 정치적인 기능을 넘어서, 요리가 힘든 시기에 보존이 어려운 것부터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장하게 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① 아들을 못 낳는 여인들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는 생존 가능성과 관련이 없는 행위였다.
- ② 기우제와 기청제는 모두 농사에 필요한 적정량의 강수를 원하는 제사였다.
- ③ 조선 시대 고위층은 제사가 미신적인 행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④ 기청제는 기우제보다 늦은 시기에 행해졌을 것이다.
- ⑤ 여인들이 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면 기청제 기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문 2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1920년 6월 4일 독립군 홍범도, 최진동 부대의 예하 1개 소대가 동간도 화룡현 삼둔자를 출발하여 월신강을 넘어 북간도로 이동한 후, 다시 두만강을 건너와 함경북도 중성군에 주둔하고 있던 1개 소대 규모의 일본군 헌병을 기습 공격하여 몰살시켰다. 이를 삼둔자 전투라 부른다.

삼둔자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일본은 야스카와가 이끄는 월강추격대를 편성하여 삼둔자에서 시작해 독립군의 이동 경로를 채추적하며 독립군 거점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해 6월 7일 홍범도는 군무 도독부군, 국민회 독립군과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고 봉오동 골짜기 인근에 포위진을 짜고 이화일을 소대장으로 임명해 일본군을 유인해 오도록 하였다.

함경북도까지 독립군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따라 이동한 월강추격대는 독립군의 거점인 봉오동 골짜기 입구에 도착해 먼저 진위중대를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보냈다. 이화일 소대는 월강추격대를 유인하기 위한 교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적극적으로 일본군과 교전한 결과, 일본군 진위중대가 참패를 당하게 된다. 이후 월강추격대는 우선 후퇴를 한 후, 전투를 위한 재정비를 마치고 대오를 정렬하여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진입했다. 당시 봉오동에 잠복해 있는 독립군은 700명에 달했다.

홍범도는 직접 2개 중대를 인솔하여 일본군의 선봉이 봉오동 어구를 통과하도록 유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안개가 자욱히 저려 일본군의 시야가 흐려진 틈을 타, 홍범도는 독립군에게 퇴각하면서 최대한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도록 명령하였다.

일본군 선발대의 척후병이 독립군의 포위망 안으로 진입하고, 아무도 없음을 알리자 일본군 본대가 봉오동 골짜기로 진입했고 봉오동 골짜기 내 독립군의 포위망에 들어오자 홍범도의 사격개시 명령에 따라 3면에서 일제 공격이 시작되었다.

전투 결과 독립군의 전사자는 4명, 중상자 2명이었으나 일본군의 피해는 전사자 157명, 중상자 200여명으로 독립군 피해의 약 60배에 이르렀다. 이 전투가 봉오동 전투다.

- ① ‘삼둔자 전투’의 명칭은 교전이 일어난 지역명을 딴 것이다.
- ② 홍범도는 봉오동 골짜기 반대편에서 일본군의 선봉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 ③ 군무 도독부군은 홍범도 예하에 속해 있었다.
- ④ 일본군은 이화일 소대에 패한 것을 설욕하기 위해 봉오동 골짜기로 진입하였다.
- ⑤ 월강추격대는 월신강을 건너 북간도로 향했다.

문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국제정치 및 국가 외교에 미친 영향도 대단히 크다.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혁명에 이은 나폴레옹의 등장 및 그로 인한 전쟁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적 국제협조 체제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중·근세 유럽에서 ‘동맹’이란 세력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예를 들면 이웃 나라가 패권국의 지위로 나아가는 경우 그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은 국가가 발전해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경우엔 그 동맹을 해체하고 그 전의 적국과 동맹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당시 동맹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동맹의 목적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항구적인 평화는 각 국의 관심이 아니었고 세력균형을 맞춰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것이 동맹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전쟁과 그 후의 나폴레옹 전쟁을 겪으며 유럽 각 국은 ‘동맹’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 초반만 해도 유럽 각 국은 나폴레옹의 목표가 프랑스를 패권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 영국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은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다 해체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단순히 프랑스를 패권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유럽 전체를 장악, 식민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랑스 세력이 충분히 약화되었다는 인식에서 유럽 국가들이 대(對)프랑스 동맹을 해체하면 나폴레옹은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유럽 각 국들의 대(對)프랑스 동맹은 20년의 기간 동안 7차나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 각 국가들은 나폴레옹을 무찌르기 전까진 동맹을 해체하지 않기로 하였다. 심지어, 나폴레옹을 완전히 몰락시킨 워털루 전투(1815)가 끝나고도 협조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1815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열린 ‘빈 회의’에서는 유럽의 평화를 위해 항구적인 협조를 하자는 대원칙에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회의 결과 성립된 국제적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한다.

- ① 중·근세 유럽에서 동맹은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수단이었다.
- ② 나폴레옹 전쟁 초반까지 유럽에서 동맹은 항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 ③ 유럽 각 국가들은 기존 동맹 방식이 나폴레옹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자 새로운 동맹 방식을 채택했다.
- ④ 나폴레옹은 유럽 각 국가들의 전통적 동맹 방식을 역이용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 ⑤ ‘빈 체제’는 근대적 의미의 국제 협조 체제이다.

문 25.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늘날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때로는 억압된 욕망의 상징으로, 때로는 행복과 성공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종교를 살펴보면 무의식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보다 더 심오한 고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종교나 신비주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일반적 의식으로 인지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무언가가 있다고 했다. 종교 전통에 따라 이는 저마다 다르게 불렀는데, ‘우주 의식’이라든가 ‘진아’, ‘신성’ ‘일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학자 윌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무언가를 ‘원초적 형상’이라 부르고 그것을 인간이 감각하기 이전에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이라 보았다. ‘원초적 형상’은 의식이 존재하기 이전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근거로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빛들은 진정한 빛의 단면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환희는 본질적인 행복의 열화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우리가 오감을 통해 느끼는 모든 인지는 ‘원초적 형상’의 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평범한 사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 형상’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기에 거짓된 인지를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여진다고 보았다.

이는 오래된 철학적 아이디어와도 닮아 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하여 세상의 실체인 이데아를 동굴 밖 세상으로, 동굴 안의 어두운 세상을 현실의 세상에 빚대며 행복에 이르기 위해 이데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데아의 그림자를 보는 사람이라 했으며 철학자는 성찰과 공부를 통해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했다.

—<보 기>—

- ㄱ. 윌버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은 ‘원초적 형상’과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 ㄴ. 윌버에 따르면 플라톤이 추구한 이데아는 자기 내면에 있는 본질이다.
- ㄷ. 윌버가 제시한 ‘원초적 형상’은 종교 전통에 따라 우주 의식이나 진아 등 각각 다른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종교 전통과 무관히 동일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26.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무한소수 ‘0.999...’가 1과 같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 중 하나로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다. 허나 많은 이들은 0으로 시작하는 수가 어떻게 1과 같을 수 있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극한 개념이 있다. 극한은 ‘한 없이 가까워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0.999의 뒤에 9를 무한하게 붙이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보자. 이를 1보다 작다고 판단하여 그 차이를 말하려 하는 순간, 다시 9가 숫자 가장 뒤에 더해진다. 즉, ‘0.999...’를 1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무한을 결코 실현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 것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삼각형을 이용하여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 관점은 뉴턴과 라이프니츠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수용한다 하여도 ‘0.999...’를 1 그 자체로 볼 수 있는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 없이 작아지지만 0은 아닌, 즉 ‘0.000...’의 값을 가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작아진 어떤 수를 델타라 하자.

㉠ 비로소 두 수가 같음이 증명될 수 있다. 이 때 ‘0.999...’를 ‘실재하는 무한’이라 한다. 이 상태에서는 ‘0.999...’는 그 자체로 1과 같아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수는 임의의 양수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 보자. 델타를 절반으로 나눈 수를 엡실론이라 명명하자. 즉, ㉡ 델타보다 더 작은 어떤 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델타는 개념상 가장 작아진 어떤 수라는 것과 모순된다. 따라서 델타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값은 0이 된다.

- ① ㉠: 만일 델타가 존재하지 않거나 0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 델타가 존재하고 그 값이 0보다 크면
- ② ㉠: 만일 델타가 존재하지 않거나 0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 델타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값이 0보다 크면
- ③ ㉠: 만일 델타가 존재해 그 값이 0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 델타가 존재하고 그 값이 0보다 크면
- ④ ㉠: 만일 델타가 존재해 그 값이 0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 델타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값이 0보다 크면
- ⑤ ㉠: 만일 델타가 존재해 그 값이 0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 델타가 존재하고 그 값이 0이 아니면

문 2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고 있던 물건을 빼앗았다고 가정해보자. 이것만으로 빼앗은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유란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 즉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반면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이른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위 가정에서도 빼앗은 사람이 오히려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였을 수 있는 것이다.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상태 등을 포함한다. 반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한 내로 그 물권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직접점유는 아닐지라도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점유라고 정의된다. 양자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특정 상태를 지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공시(公示)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인 동산 중 대다수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대다수 동산은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의 간접점유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도 있다. 점유개정의 경우, 양도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양도인이 잠깐 빌려 쓰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생겨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빌려준 상황에서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빌려준 사람에게 그 물건을 소유권을 양도받은 타인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반환청구권이 원래의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을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소유권 양도가 점유 인도로만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의 일종으로 등기와 등록이 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된다.

- ① 직접 점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
- ②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물건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 ③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반면에,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된다.
- ④ 경제학 교과서를 소유한 A가 B와 교과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시험까지는 A가 B에게서 교과서를 빌려 쓰기로 했다면, B는 청구권 양도를 통해 점유 인도를 받은 것이다.
- ⑤ A 부동산을 소유한 갑이 을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그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했다면 을은 간접점유를 통해 소유권 양도를 공시한 것이다.

문 2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A회사의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A회사의 주식을 빌려 6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며칠 후 A회사의 주가가 50까지 떨어졌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50만원에 동일한 수량의 A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차익을 거두는 투자방식이기에 투기성이 짙을 뿐 아니라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조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에는 두 유형이 있다. 우선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정산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서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다른 유형은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 차입 없이 공매도를 진행하는 유형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차입 공매도의 방식은 다시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로 나뉜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하고,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증권사 매개 없이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며,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다.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를 통해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빌린 액수와 공매도 규모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공매도가 활기를 띤 것은 1996년 당시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그러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금융주 공매도는 2013년까지 금지되었다.

- ① 1996년에는 2007년과 달리 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았다.
- ② 개인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린 후, 빌린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공매도로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조작을 통한 주가 하락이 필요하다.
- ④ 2001년에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렸다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 ⑤ 무차입 공매도 방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특정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문 29.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홈즈와 나는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샹그릴라의 눈, 그 아름다운 보석이 도둑맞은 현장에는 많은 경시관들이 있었다. 잠깐 현장을 둘러본 후, 홈즈가 내게 물었다. “왓슨, 자네 역시 나와 많은 사건을 겪었으니 독립해서 탐정을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될 테지. 자네의 생각으로는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대답했다. “우선 자네의 숙적 모리아티 교수일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리고 ‘고귀하신’ 공작 나리 존 클레이 역시 이런 큰 사건을 벌이기 좋아하니 가능성이 충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아르센 뤼팽. 그가 최근 가니말 경감의 손아귀에서 탈출하여 영국에 입국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 그 셋 중 한 명만이 범인임이 틀림없을 것이야.”

홈즈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도 보는 눈이 많이 늘었어.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네.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보지. 존 클레이는 단순히 돈만 좇아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니야. 그 작자는 하나의 범죄에서 절도, 폭행, 살인 등을 모두 행하기 좋아하지. 따라서 ㉡ 존 클레이가 범인이라면 범죄 현장에 혈흔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것일세.”

홈즈가 파이프를 입에 물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제 새로운 첩보가 입수되었어. ㉢ 아르센 뤼팽은 영국을 경유지로 삼아 바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일세.”

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홈즈에게 말했다. “그럼 역시 ㉣ 모리아티 교수가 범인이라는 것인가?” 홈즈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왓슨, 그렇게 앞서갈 이유는 없네. 왜냐하면 ㉤ 아르센 뤼팽이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 자가 유포한 거짓소문들을 모아보면 지구를 한 바퀴 감싸고도 남을 거야. 또한 아직 현장 감식이 다 끝나지 않아서 혈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 그러니 ㉥ 존 클레이 공작 나리께서 범인일 수도 있지. 우선, 현장 감식이 끝나기 전까지 좀 기다려 보세.” 홈즈와 나는 파이프를 시가를 같이 태우기 시작했다.

—<보 기>—

㉠. 혈흔이 범죄 사건 현장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 전체 되면 ㉠, ㉡, ㉢로부터 ㉣이 도출된다.

㉡. ㉠이 참이고 ㉣이 거짓이라면, ㉤은 거짓이다.

㉢. 왓슨이 범죄 사건 현장 구석에서 혈흔을 발견했다면, 왓슨은 ㉠, ㉡으로부터 ㉣이 거짓임을 도출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0.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저성장극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특별검사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의 업무가 특검 조사로 인해 마비된다면 특검 도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법부의 판단 덕분이었다. 만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위원회도 특검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만일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급여수준이 높지 않았다면, 부위원장과 간사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향후 커리어 전망이 밝지 않았다면, 부위원장 유고 시 임시로 부위원장을 맡게 되는 최선임 위원과, 위원장 두 사람 모두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재계약이 확실시되지 않았다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위원회 내 특별한 직위를 가지지 않는 일반 위원들 전체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보 기>—

㉠.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향후 커리어 전망은 밝다.

㉡. 간사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급여수준이 높을 것이다.

㉢.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재계약은 확실시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1.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을 회사는 갑 회사와 병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 회사이다. 을 회사는 A, B, C, D, E 다섯 명의 가용 인력 중 일부를 갑 회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 A를 파견하지 않거나 A와 기술이 겹치는 B를 파견하지 않는다.
- D와 C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에 동시에 파견할 수 없다.
- C를 파견할 경우, 그와 입사 동기인 E도 파견한다.
- A와 E 모두를 파견한다면, 약 1년간 병 회사에 대한 인력 파견은 불가하다.
- B가 최근 술자리에서의 경범죄로 형사고발이 된다면 을 회사는 B를 파견할 수 없다.
- 반년 뒤 을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해 인력을 파견했다.

- ① 을 회사에서 2명이 갑 회사로 파견된다.
- ② B가 최근 술자리에서의 경범죄로 인해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 을 회사는 A를 갑 회사로 파견한다.
- ③ 을 회사에서 C를 갑 회사로 파견할 경우, 을 회사는 총 2명을 갑 회사로 파견한다.
- ④ 을 회사에서 D를 갑 회사로 파견할 경우, 을 회사는 최대 3명을 갑 회사로 파견할 수 있다.
- ⑤ 을 회사에서 B를 갑 회사로 파견할 경우, 을 회사는 최대 4명을 갑 회사로 파견할 수 있다.

문 32. 다음 대화의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A: 소장님, 현재 당내 경선에 관해서 갑 ~ 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에서는, 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은 후보들은 모두 을 집단에서도 유효한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한 후보들은 모두 정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B: 그런가? 그제 진행한 또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방금 나왔는데, 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했지만 을 집단에서는 유효한 지지율을 얻은 후보도 있다고 하더군요.

A: 그렇군요. 아, 그리고 본 경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고 본 경선 전날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의 둘 중 하나로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 가지 경우는 “ ㉠”는 결과입니다.

B: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다면, 그 경우에는 병 집단에서만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한 후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군요.

A: 그리고 다른 한 경우는 “ ㉡”는 결과입니다.

B: 그런 경우라면, 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는 후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군요.

- ① ㉠: 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있다.
㉡: 정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한 후보가 있다.
- ② ㉠: 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은 후보는 없다.
㉡: 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한 후보가 있다.
- ③ ㉠: 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한 후보는 모두 을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
㉡: 갑 집단과 정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있다.
- ④ ㉠: 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한 후보는 모두 을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
㉡: 정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지 못한 후보가 있다.
- ⑤ ㉠: 갑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있다.
㉡: 갑 집단과 정 집단에서 유효한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있다.

문 33. 다음 글의 <이론>에 대한 반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호르몬은 생체의 각종 분비샘에서 분비되어, 순환계를 통해 표적 장기로 이송된 후 각종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일련의 신호전달 분자를 말한다. 호르몬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분비될 경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르몬 주사 등을 통한 외부 호르몬 조절은 호르몬 분비 체계를 망칠 수 있다. 최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질병 X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과학자는 질병 X가 발병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로 다음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론>

유전자 A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뇌하수체에 있는 호르몬 분비세포H가 종양세포H로 바뀐다. 그 후 종양세포H는 주변에 있는 정상 호르몬 분비세포와 결합하게 되고, 결합된 정상 호르몬 분비세포H는 종양세포H로 바뀌게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정상 호르몬 분비세포 대부분이 종양세포로 바뀌어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체계가 망가지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부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생산된다. 그 결과 부신피질에서 만성적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과도하게 생산되는 질병 X가 발생하게 된다.

—<보 기>—

- ㄱ. 정상적 호르몬 분비세포 H가 종양세포 H로 모두 변화하여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체계가 망가지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 ㄴ. 질병 X가 나타난 환자의 뇌하수체에 종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 ㄷ. 호르몬 분비체계가 망가진 요인으로 종양과 무관한 요인이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恒星)이다. 항성의 모양을 결정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력으로, 이는 별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뭉쳐 압축시키는 힘이다. 중력에 의해 별은 자꾸 작아지려는 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원리는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중력에 의해 원자핵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결합되면서 전자의 질량이 거대한 에너지로 환원되는데, 이 과정에서 별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막대한 힘과 빛을 만들게 된다. 이 내부의 운동에너지는 별 내부의 압력을 높여 별의 부피를 팽창시키는 힘으로 나타나고,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 안정된 상태가 될 때, 별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때 별의 모습은 구형이 된다.

이때 별이 빛을 내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려간다고 대답해야 할 것만 같다. 에너지를 방출하니 별이 식을 것이고,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온도는 올라간다. 이는 물리학의 ‘비리얼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리에 따르면 만유인력과 같은 힘이 작용하는 계(界)에서, 계 안에 들어 있는 입자들의 운동에너지 총합은 퍼텐셜에너지의 크기의 절대값에 비례한다. 이때 퍼텐셜에너지란 입자가 별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여 더 큰 음수값을 갖는 힘을 말한다. 퍼텐셜에너지가 더 큰 음의 값을 가질수록 운동에너지는 더 큰 양의 값을 갖게 된다. 이제 별의 에너지 방출을 살펴보자. 에너지를 방출하면 압력이 감소하여 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한다. 그런데 별이 축소되면, 즉 별의 반지름이 줄어들면, 퍼텐셜에너지는 더 큰 음의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의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된다.

—<보 기>—

- ㄱ. 어떤 항성의 운동에너지가 기존보다 작아지면 중력에 의해 수축하게 된다.
- ㄴ.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퍼텐셜에너지의 절대값은 줄어든다.
- ㄷ. 항성 내부의 운동에너지가 커지면 별의 온도가 올라간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5.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치개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선거제도가 개편될 경우 그것만으로도 기존 정치 질서에 변동을 초래하기에, 정치개혁이 달성될 것이다.

을: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이 달성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21세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꾼 사례가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요 정당들이 지배하는 정치 질서가 유지되어 정치개혁 달성에 실패하였다. 물론, 선거제도 개편이 없다면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병: 을의 주장과 관련해 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해당 국가들의 선거제 개혁 법안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해당 국가들의 주요 정당들은 그러한 법적 결함을 이용하여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선거제도 개편만으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법적 결함의 존재 가능성 때문이다. 나는 법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① 갑과 병에 따르면,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개혁이 달성된다.
- ② 갑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이 달성된 경우가 있다.
- ③ 을에 따르면,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편에 필요하다.
- ④ 병에 따르면,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항상 정치개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병에 따르면, 거대 양당이 법적 결함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달성된다.

문 36. 다음 갑 ~ 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란 어떻게 해야 구현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격차 완화는 단순히 총량적 의미에서의 소득 편차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함을 뜻한다.

을: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이 시행된다고 그것만으로 경제적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영업권이 제한되는 사회를 경제적으로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재분배정책을 두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한 성공 사례라 칭하는 이유는, 해당 정책이 영업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으로 정의롭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병: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경우 경제적 정의가 달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반드시 민주적인 사회인 것은 아니다.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맞지만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의 달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다수결 원칙에 배치되지만 소수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고 있는 사회를 두고, 그 정책을 이유로 경제적 정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 기>

- ㄱ. 경제적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로 인정하는 사례는 셋 중 갑이 가장 많고 을이 가장 적다.
- ㄴ. 을은 '경제적 정의가 달성되면, 그로 인해 민주주의도 달성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 ㄷ. 병은 다수결 원칙에 반하여 소수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는 사회도 경제적으로 정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7. 다음 실험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초등학생 D는 여름방학 숙제로 화합물이 식물 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초등학생 D는 아래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 가설 1: 락스 희석액에서 생육한 식물은 바로 죽을 것이다.
- 가설 2: 세탁세제 희석액에서 생육한 식물은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다.
- 가설 3: 과탄산소다는 친환경이니 희석액에서 키운 식물은 잘 성장할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 D는 락스의 독성이 가장 강하고, 세탁 세제 희석액은 독성이 중간이며 과탄산소다는 독성이 약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실험이었다. 초등학생 D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식물을 세 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 1의 식물에게는 락스를 희석한 물을 주었고 실험군 2의 식물에게는 세탁세제 희석액을, 실험군 3의 식물에게는 과탄산소다 희석액을 주었다. 대조군으로 일반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식물을 키웠다.

<실험 결과>

- 실험군 1의 식물과 대조군의 식물의 생육상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 실험군 2의 식물과 대조군의 식물은 일주일 동안 생육상태에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주차부터 실험군 2의 식물이 서서히 말라 들어갔다.
- 실험군 3의 식물은 생육 일주일 만에 말라 죽었다.

<보 기>

- ㄱ. 락스는 특유의 냄새로 독성이 있을 것이라 오해되지만 락스에는 독성이 없고 락스 냄새는 살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가설 1을 약화한다.
- ㄴ.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는 제품은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친환경 제품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은 실험 결과를 강화한다.
- ㄷ. 세탁세제 희석액의 주요성분인 계면활성제가 유기물에 달라붙어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생화학 작용을 교란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험군 3과 실험군 2의 실험 결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8.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식으로서의 과학은 잠재적인 힘이다. 지난 두 세기 동안 과학적 인식양식이 다른 인식양식을 제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이 발휘할 수 있었던 힘에 근거한다. 힘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악은 인간이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아편은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지만 중독자로 만들 수 있으며, 다이너마이트는 건설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량학살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과학이라는 지식이 갖고 있는 잠재력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훼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생태계의 보존과 자연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명의 위기를 과학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극복할 수 없다. 과학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이며, 과학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이다. 생태계 파괴, 자연훼손이 초래한 위기의 책임은 과학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을 잘못 활용한 인간에게 있으며, 과학은 여전히 생태계, 자연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무,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 또한 오직 인간뿐이다.

책임은 곧 자율적 선택을 의미한다. 생태계의 유지와 자연보호, 문명의 장래와 인류의 생존, 이 모든 것의 운명은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은 언제나 경쟁하는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도박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현실이란 자연과 인간 자신,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의미한다. 현실 인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가치 선택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새벽을 열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인류문명의 큰 맥락에서 볼 때 환경과 자연 파괴의 문제는 인류가 대처해야 할 가장 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사유의 혁명적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시작에는 인간은 결코 지구와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일부일 뿐이라는 인식에 있다.

<보 기>

- ㄱ. 인간이 과학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의 선악 구별이 가능하다면, 이 글의 논증은 약화된다.
- 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사유하지 않고도 오늘날 자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글의 논증은 약화된다.
- ㄷ. AI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면, 이 글의 논증은 강화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39. ~ 문 40.]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 물가상승으로 1980년대 이후 40여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일까?
 ㉠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폐 발행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수급 문제나 노동시장의 문제 등 실물 측 원인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화폐에 대한 고전 학파의 생각을 이어받은 통화주의 학파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이 있는데, 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실물시장이 아닌 오직 화폐시장에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화주의 학파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사교의 기초를 형성하는 고전 학파적 현금잔액수량설을 알아야 한다. 현금잔액수량설에서는 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보고, 사람들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제의 총 자산은 물가에 총생산을 곱한 명목소득과 비례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의 전체적인 화폐수요는 명목소득에 화폐보유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화폐수요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화폐공급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화폐시장의 균형이 성립된다고 본다. 화폐공급이 늘어났다고 해보자. 공급된 화폐가 경제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본인들의 명목소득에 비해 화폐 보유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게 된다. 이때 지출이 늘어나 경제 전체에서 물품에 대한 총수요가 커지면, 총생산과 화폐보유비율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화폐수요가 화폐공급이 늘어난 만큼 증대되어 균형이 회복한다. 반대로 화폐수요가 화폐공급보다 많아지면 명목소득에 비해 보유한 화폐 보유량이 적다고 판단하여 지출을 줄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물가 하락을 통해 균형이 회복된다.

통화주의에서는 국제무역을 할 경우의 경상수지도 화폐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들은 명목소득에서 명목총지출을 뺀 값을 경상수지라고 정의했고 명목총지출은 화폐공급에서 화폐수요를 뺀 값에 화폐시장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명목소득에 더한 값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화폐수요에서 화폐공급을 뺀 값에 화폐시장 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몇가지 가정을 더하여 통화주의자들은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의 화폐공급 증가로 이어진다고 본다.

국제 무역까지를 고려했을 때 물가 상승을 살펴보자. 세계를 본국과 외국으로 구분할 경우 세계 전체의 화폐시장 균형은 본국과 외국의 화폐공급을 합한 세계화폐공급과 본국과 외국의 화폐수요를 합한 세계화폐수요가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율이 1이라고 가정하면 균형에서 본국의 물가, 해외의 물가, 세계 전체의 물가는 같아진다.

이때, 본국에서 화폐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본국 사람들은 현금잔액수량설에 따라 지출을 늘린다. 따라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는 본국 상품에 대해서 재화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외국 상품 수입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화폐공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이러한 본국과 외국의 물가 상승은 외국의 화폐공급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물가 상승률이 본국의 화폐공급 증가율, 즉 세계화폐공급의 증가율과 일치할 때까지 발생한다.

문 39. 위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공급망 문제, 에너지 자원 수급 문제 등 실물적 측면에 있을 수도 있다.
- ②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화폐공급이 늘어나 화폐수요가 많아지는 경우 물가가 상승한다고 본다.
- ③ 총생산과 화폐보유비율이 고정이라면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본국의 화폐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고 본다.
- ④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화폐시장의 불균형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세계 전체의 물가 상승률은 세계화폐공급의 증가율과 일치하게 된다고 본다.

문 40. 위 글의 ㉠,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 1970년대 인플레이션 위기는 베트남 전쟁 전비 조달을 위한 화폐팽창으로 인한 것이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 주장은 약화된다.
- ㉡. 1970년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폴 볼커가 통화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다면 ㉡의 주장은 약화된다.
- ㉢.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Covid-19로 인한 생산망 문제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수급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 주장은 강화되고 ㉡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